

개 회 사

(2013년 제2차 직할 교구총회)

불법홍포와 가람수호에 매진하면서 종무행정의 일선에서 진력을 다하시는 직할교구 주지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는 제33대 집행부 내에서는 마지막 교구총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총무원장 선거인을 선출하는 현안이 주요 안건이기에 차기 집행부를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소신으로 차분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단과 구성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긍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금번 선거 역시 종헌종법의 질서 속에서 여법하고 공명하게 치러내어, 불필요한 소모를 없애고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단 그리고 더 작게는 교구의 소속감으로 종무행정을 함께 완성하고 공동으로 이끌어 가는 실천은 결코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효율적인 종단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자,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역할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교구 역시 다양한 변화에 능동으로 대응하고 지역내에서 여러 사업을 실천하면서 구성원이 결집하고 공동대처의 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다수 사찰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제일의 구성원을 자랑하는 직할교구야 말로 종단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큰 가능성이라 하겠습니다. 직할교구가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모범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실은 수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 풍요로움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주지스님들께서도 종단과 교구의 행

정을 함께 실천해 가면서 지역내에서 뜻깊은 수확을 이루고 이에 대한 나눔으로 많은 사람의 희망과 행복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교구 그리고 종단으로 회향되어 함께 결실을 이루고 나아가 불교의 중흥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선거로 인해 종단과 불교의 위상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처럼 바른 풍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가는 종무행정을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9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의장 자 승